

도서관은 주민이 꿈을 꾸는 또 하나의 집

박형동 관장 '꽃동산작은도서관' 두 달 운영해 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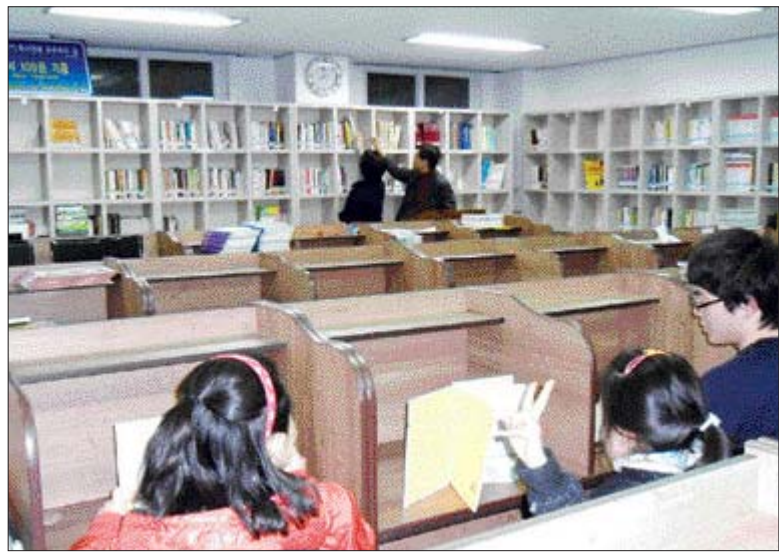
자산동에 '꽃동산작은도서관'을 연지 두 달이 넘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 마을 안에 있어서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대출과 열람 등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성실하고 친절한 활동으로 차츰 기대하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첫째 마땅한 학습장소를 찾지 못한 중·고·대학생들, 둘째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유치원생들을 포함한 어린 초등학생들, 셋째 자녀교육을 위해 좋은 일이 없을까 하고 찾아와 보는 부모들, 그리고 몇몇 나이 든 분들이었다.

독서는 이렇듯 중요하다. 특히 어렸을 때의 독서는 그 영향을 받고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책을 빠져든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치지 않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직 다 채워지지 못한 서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구멍이 나서 찬바람이 송송 불어대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채워지겠지만, 빈 서가를 볼 때마다 내 능력과 정성이 그만큼 부족한 것 같아서이다. 그래서 나는 늘 책을 싸게 살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 다음에 형편이 되면 유아용 도서관도 지능개발을



개관 두달을 맞은 꽃동산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예쁘게 자라고 있다. (꽃동산작은도서관 제공)

열람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 보노라면 저절로 흐트

'영유아 자녀 부모 세미나' 반응 좋아 계속 열기로

위한 용품을 구입해야겠다.

우리 꽃동산작은도서관에서는 지난 5월 29일에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조선대 의과대학 소아과 문경래 교수와 김민형 굿모닝치과 원장, 그리고 신명신 유치원장의 영유아들의 건강관리와 생활교육을 위한 강의와 만찬이 이어졌는데, 20여 가정의 부모들이 열심히 청취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비록 작은도서관

이지만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반응이 좋아 제2, 제3의 세미나를 계속 열기로 했다.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 방학에는 지난 겨울방학처럼 중·고등학생들에게 유익한 강의와 학습도우미 활동,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공간과 식사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어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시내버스를 얹은 봉투에 담아 드렸는데,

그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원해서 하는 일인데 무슨 교통비냐?'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통에 한참동안이나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도서관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도서관을 지켜주는 자원봉사자들을 볼 때마다 내 가슴속은 고마움과 미안함이 절절하게 버무려져 온다.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섬김이 있기에 세상은 살맛나는 것이리라. 이것은 책의 바깥에서, 그러나 책과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화롯가의 이야기 같은 것이다.

그래서 따뜻하고 행복하다. 꽃동산작은도서관! 우리 도서관은 바로 그런 곳이다.

(시인·꽃동산작은도서관장)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효령노인타운 어르신들이 직접 빚고 깎아 만든 화분·목공예품 등 7월부터 전시·판매전 관심”

노인 일자리 사업단 어르신들이 직접 흙을 빚고 나무를 깎아 만든 화분과 그릇, 식물, 목공예 제품이 오는 7월부터 공식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단인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만들고자 추진된 것이다.

효령노인복지타운 일자리 사업단에서는 광주지역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로 이끌고자 힘이 북적이며, 숲내을 사업단(목공예), 흙내을 사업단(도

예), 풀내을 사업단(화훼), 3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효령노인복지타운 일자리 사업단 소속 어르신 48명이 효령노인복지타운 작업공방과 비닐하우스에서 전문지도사들과 함께 정성들여 제작한 공예제품과 다육식물, 풍란 등을 효령타운과 노대동 빚고흙노인건강타운 양쪽에서 선보이게 된다.

이를 위해 효령타운 등 양 타운에 상설 전시공간을 마련하고자 1차로 효령타운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장(효령프라자)을 개장하여 갖가지 다육식물 화분과 도예소품, 목공예 액세서리, 대나무용품 등을



효령노인복지타운 노인 일자리사업단의 생산품 판매장 '효령프라자' (효령노인복지타운 제공)

전시·판매하고 있다.

한편, 효령노인복지타운 일자리 사업단은 노대동 빚고흙노인건강타운 고품진화훼협관, 시청이나 다른 유관기관에도 판매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문의 062-603-9988.

▲정성주·효령노인복지타운 인력관리팀

클릭! 맛집



장어가 파김치에 빠진 날

1개월 숙성된 파김치만 사용...원기회복 환상의 짝꿍!

■광주시 행암동 '호박골'

줄줄 흐르는 땀방울, 처지는 어깨, 움직이기 싫고 무기력한 오늘, 집 안의 문고리를 부수고 싶다면 이 집으로 가라. 광주시 남구 행암동 '호박골(업주 윤왕립)'은 여름 보양식의 최고봉인 장어를 이용한 파김치전골이 일품이다.

장어파김치전골은 다소 생소한 음식이다. 장어 소금구이나 양념구이가 아닌 장어와 파김치의 조합이 다소 생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골을 한 숟가락 떠입어 넣으면 생각이 확 바뀐다. 장어의 담백함과 파김치의 아삭한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입은 물론 원기회복으로 몸 전체가 호감한다.

장어파김치전골은 전북 고창군에서 공수해오는 장어와 전남지역 농민과 직거래해서 가져오는 파김치를 사용한다. 장어뼈 등을 이용해 만든 육수에 파김치와 버섯, 대파 등을 넣어 끓인다. 특별히 맛을 내는 비법은 없다. 오로지 장어와 파김치만을 이용해 맛을 낸다.

파김치는 너무 익지도, 덜 익지도 않은 적당한 맛을 유지시키는 게 관건이다. 이 때문에 주인장은 한 달가량 숙성시킨 파김치를 일정한 온도에서 보관하면서 그 절묘한 맛을 유지한다.

보글보글 끓여 적당히 익은 장어와 파김치를 돌돌 싸서 입으로 던져 넣으면 바다의 맛은 물론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농산물의 진한 향도 맛이 느껴진다. 국물 맛도 끝내준다. 애주가들의 손이 술잔을 드느라 쉴 틈이 없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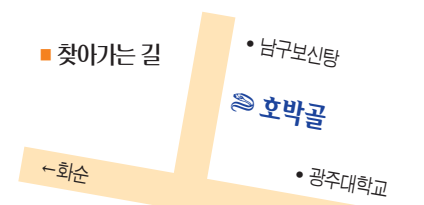
파김치의 시원한 맛이 잘 배어든 장어를 껌잎에 싸서 먹으면 더할 나위 없다. 장어를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만하다.

장어소금구이도 참숯에 초벌구이를 해 내오기 때문에 기름이 제대로 빠져나와 더욱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여름의 별미 삼계탕도 판매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양하게 맛을 즐길 수 있는 집이다.

장어파김치전골 5만5000원(3~4인 기준), 장어소금구이 1kg 4만3000원, 삼계탕 1만6000원. 문의 062-676-0080. /글·사진=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장어 소금구이〉



MEGABOX

1관	포화속으로 (124)	최고급관
2관	섹스엔더시티2 (184)	
3관	방자전 (184)	
4관	포화속으로 (124)	
5관	드래곤길동이기3D(자막)더빙(전세) 스트리스댄스 (124)	
6관	A-특공대 (124)	
7관	포화속으로 (124)	
8관	영문2 (154)	
9관	포화속으로 (124)	

• 호남주치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관람권구매 포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립면약국사거리 ☎ 1544-0600

컬롬버스시네마

1관	A-특공대 (154)
2관	드래곤길동이기3D (전세)
3관	섹스엔더시티2 (184)
4관	베스트 키드 (124) / 방자전 (184)
5관	방자전 (184)
6관	스트리스댄스 (124)
7관	페르시아의 왕자 (124)
8관	포화속으로 (124)
9관	영문2 (154)
10관	포화속으로 (124)

3D디지털 상영!
4/1(목) 상무전, 아남전 동시개봉!
무조건 해치운다!

1588-7941 상담연결 방법 - (1번 or 2번) → 0번

CINUS 색깔있는 영화산책 씨너스

1관	방자전 (184)
2관	A-특공대 (154)
3관	포화속으로 (124)
4관	베스트 키드 (124)
5관	드래곤길동이기3D(자막)전세
6관	스트리스댄스 (124)
7관	페르시아의 왕자(124)/섹스엔더시티2(184)

씨너스 전대 3D(4K) 상영!
• 무료주차 3시간 • 아남동신사 할인혜택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Primus 영화보는 즐거움이 있는 곳 제일극장

1관	포화속으로 (124)
2관	영문2 (154)
3관	스트리스댄스 (124)
4관	방자전 (184)
5관	내 짝배같은 애인 (154)
6관	섹스엔더시티2 (184)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서수소 일호타워주차장 - 단, 입장권 구매 교외에 한함)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cinema.co.kr •
종장로 3가 ARS 전화예매 ☎ 227-1960